

한 사람을 귀히 여깁시다!

이 철 목사

1947년에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 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과학자요, 천체물리학자였던 천드라 세카 박사에게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겨울 방학 동안에 고급물리학에 관한 특강을 좀 해 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가 쾌히 승낙했는데 몇 주 후에 그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작아서 강의를 취소해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등록했느냐고 물었더니 두 명밖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때 천드라세카 박사는 클래스가 작은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 두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천드라세카 박사는 강의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추운 겨울동안, 시카고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눈보라와 차가운 바람을 헤쳐가면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일주일에 이틀씩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 겨울 강의를 했습니다. 그 두 학생을 상대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꼭 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 천드라세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첸닝 양(C. N. Yang) 박사이고, 또 한 분은 충도 리(T. D. Lee)라는 중국계의 미국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상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천드라세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이 천드라세카 박사는 한 사람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 동안 자기의 귀한 시간을 두 사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의 노벨 물리학자를 키워 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일꾼들 뒤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고 그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 키워 주신 천드라세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는 물리학자나 이 세상의 인물을 키워내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고 하신 말씀(마9:37-38)을 따라 천국 일꾼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꾼을 키우는 원리는 같습니다.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귀중한 것을 바쳐서 헌신할 때 그들이 천국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일꾼들을 키우셨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온 삶을 희생해 준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키우는 자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을 키웁니다. 그러나 그 일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또 그 일을 해 나가는 원리도 같습니다. 천드라세카 박사처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키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는 이때에 나의 생의 열매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나의 최선을 쏟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